

자기 소개서

<p>성장과정</p>	<p>[뿌리 깊은 창작의 흥미, 웹툰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p> <p>학창시절 선생님께서 저를 ‘괴짜’ 라고 부르셨습니다. 특기를 적어오라던 유인물에 ‘가만히 앉아 생각하기’라는 독특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저에게 가장 흥미 있던 놀이는 ‘창작’이었습니다. 반 친구에게 그들을 등장인물로 한 일상만화를 보여주고, 월간 학급 신문을 맡아 항상 교실 뒤 게시판에는 제가 만든 창작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흥미는 대학 전공에서 이어져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작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황룡문학상’에서 소설 부문 ‘가작’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점’이라는 제목으로, 제 또래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생활고를 이겨내며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현대 소설이었습니다. 단지 창작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공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교수님과 학우들이 소설을 통해 느낀 바를 토론하고 평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인해 일방향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만족하던 창작 과정에서 양방향적으로 개개인과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뜻 깊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p> <p>그러나 졸업 후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동기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취직을 우선하여 생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고, 덩달아 저 역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흥미와 오랜 꿈을 외면한 채 ‘조급함’이라는 하나의 감정에 압도되어 졸업을 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곧바로 거주지 인근의 사무직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든 사회를 알아갈 경험이라 생각했기에 2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열정과 시간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업무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있었고 선부르게 선택한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의 결과, 어떤 일이든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엔 그 고통마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p> <p>성공적인 웹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노력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온 만큼 진솔하게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이 이 업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한 고민은 항상 즐겁습니다. 어릴적부터 이어온 창작의 열정을 웹툰이라는 좋은 도구로 표현하겠습니다.</p>
<p>성격과 장단점</p>	<p>[회사를 우러러보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p> <p>저를 대표하는 단어는 ‘올곧음’입니다. 만일 제게 일원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의의 관계를 쌓으며, 매 순간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업무에 임할 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퇴근 후에 따로 공부했으며, 사수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밀감을 쌓아 업무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장생활에서 오랫동안 매출 1등을 달성해왔습니다.</p> <p>그러나 이런 성격으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에 소홀하며 의욕이 없는 팀원에게 멘토링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팀원이 저에게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져 부서 내 매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의 화합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자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모두의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한 올곧음은 자칫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보수적이지 편협한 사고가 될 수</p>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저는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올곧음보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올곧음의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칫 ‘양날의 검’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격이지만 제가 자부하는 점은 꾀부리며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의 중요도와 가진 능력에 상관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 때문에 전 직장에서도, 그간의 수많은 아르바이트에서도 저의 퇴사를 반복하도록 설득하거나 다시 일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웹툰 콘티 작업은 인물 간의 대화와 장면묘사 등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이득을 가장 두려워하며, 진솔하고 결백하게 일하는 것은 저의 주된 특기입니다. 만일 제게 귀사의 일원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 순간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심으로 노력하며 일하겠습니다.

[8 월 여름에서 12 월 겨울까지, 열정과 냉정사이]

웹툰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후 퇴근 후엔 일산 애니포스 학원의 직장인 웹툰반을 수강하며 기초 드로잉과 캐릭터 디자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이 제작되는 OSMU 작업 과정을 이해해보기 위해 픽사의 ‘라푼젤’을 로맨스 판타지 장르로 변환하여 캐릭터 시트와 콘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작업물이 나왔지만 자율적인 학습방법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강좌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싶어 서울 IT 직업학교에서 주관하는 ‘만화콘텐츠(홍보웹툰,캐릭터) 디자이너 양성과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학원 수강 등록에 면접이 필요할 만큼 절실하고 준비된 사람을 선호하는 면접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었고 390 시간 (4 개월)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커리큘럼이 구비된 웹툰 직업훈련과정이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해 크로키와 기본적인 인체드로잉, 캐릭터 시트 작업을 배웠으며 전문적인 스킬로는 소재 사용법, 자주 쓰이는 연출법을 위한 효과선과 가우시안 흐리기 등 도구 활용방식, 후보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어의 종류와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익혔습니다. 스토리 작법 역시 세계관 설정, 시놉시스 구성 단계를 통해 1 화 분량의 원고 콘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커리큘럼 중 가장 흥미 있던 작업 과정은 바로 콘티 제작이었습니다. 웹툰의 기본 뼈대로써 탄탄하게 자리 잡혀야만 펜터치와 밑그림, 채색과 후보정의 과정이 수월하며, 작업의 첫 장을 여는 매력적인 단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릴적부터 혼자 소설을 써보거나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보았던 저로서는 그 상상이 구체화가 되는 마법 같은 단계였기 때문에 각별히 더욱 흥미로운 과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훈련 과정의 가장 큰 수확은 웹툰 작가의 혹독한 생활패턴을 경험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짧게는 4~5 일도 채 안되는 시간에서 나날이 부여되는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매일의 취침시간은 새벽 3~4 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배움이 즐거웠고 전문적인 작업이 지속되면서 다른 직업 분야에서의 입지를 가져올 기술적 능력이 생겨나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직업을 계속해도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든 계기였습니다.

8 월의 뜨거운 여름 저 역시 뜨겁게 불사르며 웹툰을 작업해보았고, 열기가 식어 겨울이 된 지금은 냉정히 스스로를 파악하여 콘티와 데생 보조를 하고싶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작품의 장르를 구별하여 그리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장르는 있더라도 꺼리는 장르는 없습

업무능력
(경력기술)

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양한 장르에서 배워온 모든 것을 열심히 활용할 것입니다.

[성공 경험 - 인생은 실전이다]

대학 졸업 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사한 회사에서 2년 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간의 경험으로 느낀 것은 인생은 정말 실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시절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보는 PE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영업), 인사, 재무를 각 2주간 체험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실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고객 응대 방법에서부터 거래처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CS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팀원분에게 양해를 구해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였고 답변을 따로 노트 혹은 엑셀 파일에 기록하며 일을 익혔습니다. 또한 팀 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 패턴과 방식을 따라하며 나만의 업무 방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8명의 팀원들 중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 정말 보람했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기분 좋은 중독으로 인해 일하게 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온 감정들을 이겨내면 곧 성취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 배우게 될 업무도 결국 제가 마주해야 할 실전임을 압니다. 앞선 경험을 통해 어렵고 낯선 업무들도 성취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성공 및 실패경험

[오래된 준비성으로 당당한 자신감, 실패와 맞서 싸우다]

저는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편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때에는 교내 토론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조별과제때마다 발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스스로를 과신한 나머지 결국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한 다음 조별 발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엉망으로 끝나버렸고 원활했던 동기와의 교우관계도 불화를 빚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동기에 여러 번 사과를 하며 제 잘못을 뉘우쳤으나 이미 어긋나버린 관계와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큰 패배감과 좌절을 느꼈고, 발표에 대한 극심한 울렁증이 생겨 조별과제가 있는 강의를 피하거나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학년이 되어서도 저의 이런 모습에 지쳐왔습니다. 점점 사회에 나왔을 때 스스로를 어필해야 하는 자리가 많아질 것이며 여러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들을 놓쳐버리

는 것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기만 했던 제 모습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발표날이 생기면 대본을 준비하고 스스로 녹음하여 발음이 잘 전달되는지 검토해보았고 전날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발표를 들어주길 부탁했고, 이후에 피드백을 받은 부분은 여러 번을 거듭하여 수정해 나갔습니다. 아직도 발표할 때의 긴장감과 울렁증은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실패에 직면하였고 맞서 싸워보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겪기 전에는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면 지금은 오래된 준비성으로부터 비롯된 자신감을 믿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앞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저만의 해결법으로 문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지원동기 및
포부

[부족해도 당당한 사람이 되자]

웹툰 회사의 현주소는 1인 작업체제가 아닌 다수의 팀작업으로 분업이 활성화되어 공동체의 협업이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사회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돋보이는 K-웹툰을 그리고 싶은 개인적인 꿈, 긍정적인 의미의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CP사의 성장에 따라 상업적 IP 활용이 중시되는 흐름에 맞춰 웹소설 기반의 로맨스 판타지, BL을 선호중인 귀사의 전략이 현명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부족해도 당당한 사람이 되자’는 제 좌우명은 얼핏 보면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좌우명은 사회생활을 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휘되는 솔루션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첫째로 ‘모르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자’.
스스로가 모르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임자의 지시와 조언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일 적에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업무도 관한 자존심과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두 번 일해서야 알게 되자 이는 경계해야 할 자세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미숙해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일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남지 않으며 이러한 자세가 앞으로의 배움과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톱니바퀴가 굴러지는 초입부에선 빠거덕거리며 느린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원활하게 돌아가 제 역할을 하듯이, 저 역시 제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사를 위한 100%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2%의 영역은 새로이 이 업계에 도전하는 저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오랜 시간 이어온 흥미, 그리고 일관되게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